

기도의 특권

The Privilege of Prayer

에베소서(Ephesians) 6:18-20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좀 더 좁혀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Who do you think is the most foolish person in this world? I believe that it is those that say, “There is no God” as is quoted in Psalm 14:1. Who then, do you think is the most foolish person in this world among people who say, “There is a God”? That would be a person who does not pray to God.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이 많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짐이나 마지못해 하는 의무로 알기 쉬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The reasoning is that God wants to meet us through prayer and give us many good things that we have never known, but we cannot receive them because we’re not praying. Many think that praying is a burden or an obligation, but we should not misunderstand it. Prayer is a wonderful blessing and a privilege given to us by God.

우리가 생각하기로 일국의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나아가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대단한 특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특권입니다. 게다가 아무 때나 들어와도 좋다는 초청을 받았고, 그 뿐 아니라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If we could meet and talk to the President anytime we wanted, maybe we would consider it a great privilege. And if we could meet and have a conversation with God, that it would be an even greater privilege, more than any other. Moreover, we are invited by God. He allows us to come to Him anytime and He longs for us to come to Him earnestly.

구체적으로 기도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1.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히4:16에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입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시다.” 했습니다. 지상의 대통령도 한 번 만나기 어려울뿐더러 복장은 어떻게 하고 악수는 어떻게 하고 태도는 어떻게 하는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What is the privilege of prayer then? First, it is a privilege to approach the throne. Hebrews 4:16 says, “Let us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If we were to meet the President, it would be very confusing to us because of all the protocol, security procedures,

etc that we would have to follow. However, we, the children of God,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but telling God whatever it is that is on our mind.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천사장에게 중재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 아들딸이 아버지를 직접 만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기도로써 만나시면 더 기뻐하십니다.

We don't need intermediaries such as Mary, His disciples, or archangels. There is no reason for His children to not be able meet their Father directly. God is more than happy if we meet Him through prayer even though He is always with us.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지요? “에스더 왕후여, 무슨 소원이 있소? 내가 그대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에 5:3)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We all remember what Xerxes asked Esther. “What is it, Queen Esther? What is your request? Even up to half the kingdom, it will be given to you.” (Esther 5:3) That is what our God's thoughts are like.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요 14:14)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역대하 1:7)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하지 않아도 공활히 여겨 주셔서 한없는 위로와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위로의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Jesus says,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John 14:14) He also says,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2 Chronicles 1:7) When we come to God, He even gives us comfort and rest when we do not ask. When He does, it brings us to tears, tears of joy. I hope that you all receive God's grace and blessing by approaching the throne.

2.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18:19에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9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동역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Second, it is a privilege to work with God. The Gospel of Matthew 18:19 tells us, “If two of you on earth agree about anything you ask for, it will be done for you by my Father in heaven.” Also, the book of 1 Corinthians 3:9 says, “We are God's fellow workers.”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목사나 어느 선교사나 어느 부흥사의 곁에서 그들의 복음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후의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Through prayer we are coworkers with God in His ministry. In the same manner, we can work with pastors, missionaries or revival speakers through our prayers. The great work of the Holy Spirit breaks out and many souls are saved because of the prayer of believers.

기도를 통하여 영육간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어린이들을 팔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마에 손을 얹을 수가 있습니다.

We can feed those who are hungry for their body and spirit through prayer. We can hold children who suffer through prayer. We can put our hands on the foreheads of those who suffer from disease through prayer.

헨리 & 리처드 블랙커비가 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 존 하이드(John Hyde)선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이드는 인도로 향하는 배에서 친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There is a story about “Missionary John Hyde” in the book titled Hearing God’s Voice written by Henry & Richard Blackaby. John Hyde received a letter from a friend during his voyage to India.

“사랑하는 존, 자네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 자네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네.” 이 편지를 받은 하이드는 어땠을까요? 하이드는 남은 생애를 바쳐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기를 감히 성령 충만하지 않게 보다니 하면서 격분했습니다.

“Lovely John, I will never stop praying for you until you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at do you think Hyde felt after reading this? He was angry because his friend did not think that Hyde, who decided to devote his life to spreading God’s word in India, was no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 말이 맞다는 확신이 들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을 받아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께 붙들어 써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성령 안에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However, as time went by, Hyde prayed to God for help because he thought his friend was right. Later h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free from sin, so he was convinced that God would use him for His work. Since that time, he lived in the Holy Spirit.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이드에게 함께 하셔서 인도에서 하루에 한 영혼씩 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몇 년 후에는 하루에 다섯 명 이상이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인도에서 가장 영성 깊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는 귀한 특권입니다. As a result, God was with him and he saved one soul everyday. A few years later, more than five people a day believed in God through him. He became known as the most spiritual person in India. As Hyde shows, prayer is a privilege that allows us to work with God.

3. 기도는 사탄을 대적하고 깨뜨리는 특권입니다. 에베소서 6:12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Third, it is a privilege which is against Satan and that breaks Satan’s work. In the book of Ephesians 6:12 we’re told,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그 싸우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원자폭탄과도

같습니다. 어디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게 합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that we have to fight back is prayer. Prayer is like an atomic explosion. Prayer works by God's hands beyond our understanding of time and space.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숨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좌절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런 사탄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사탄의 방해물을 걷어치우고 사탄의 역사를 깨뜨립니다.

Satan controls the dark world that is behind all spiritual forces of evil. Satan constantly tries to disturb, delay, and ruin the work of Jesus Christ and His workers. Satan tries to kill people, destroy their family, ruin the nations, and break down God's work. But prayer is unbinding what Satan has bounded, removing the obstacles that Satan has placed, and breaking down Satan's work.

미생물 간에는 길항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항작용이란 다른 미생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작용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길항작용이 있어서 사탄의 세력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There is a fierce competition, an almost antagonistic relationship, among microorganisms. One microorganism is at work trying to protect a cell and to make it resistant against another microorganism that is attacking it. Prayer is like a fierce competition in that we use it to not allow Satan's power to come on us. The reason why Jesus came to the earth was to destroy all the work of Satan.

요한계시록 20:1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아비소스라는 밧 없는 지옥 구덩이의 열쇠와 굵은 사슬을 손에 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늙은 뱀, 곧 마귀요 사단인 그 용을 붙잡아 사슬로 결박하더니” 이 땅에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 왕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There is a surprising text in the book of Revelation 20:1. “And I saw an angel coming down out of heaven, having the key to the Abyss and holding in his hand a great chain. He seized the dragon, that ancient serpent, who is the devil or Satan.” This means that when Satan's work disappears, the kingdom of God will be established.

미래적 천년왕국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를 기도로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죄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불행도 멀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We don't yet know when the kingdom of God will come, but we know we have already been living in the Holy Spirit. The kingdom of God will come when Jesus our Lord rules us. So we have to bind Satan by our prayers. At that time the Holy Spirit will come and sin, sorrow, and unhappiness will disappea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분을 보여주시며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특권입니다.

Beloved sisters and brothers! Our Lord Jesus Christ told us that we should watch and pray by showing examples of prayer at Gethsemane. Prayer is a privilege to approach the throne. Prayer is a privilege to work with God.

기도는 사탄을 깨트리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천사로 활동하게 만들어 주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문제의 산을 옮기는 특권입니다. 이 귀한 기도의 특권에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rayer is a privilege to break down Satan. Prayer is a privilege to allow angels to work. Prayer is a privilege that can move mountains of problems. I pray that we all are blessed with Christian fruit by obeying the privilege and the importance of prayer.